

고고자료로 본 백제의 乞乞城 영위 사건의 성격

김 준 식*

- I. 머리말
- II. 乞乞城 추정지 주변의 고고학적 현상
 - 1. 관고리와 장식관정의 출현
 - 2. 청동용기의 출현과 모방토기의 제작
 - 3. 횡혈식석실의 출현과 새로운 葬制의 수용
- III. 고고자료로 본 乞乞城 영위 사건의 실상
 - 1. 백제계 문물의 출현배경과 이동경로
 - 2. 乞乞城 영위 사건의 역사적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6세기 백제의 가야 진출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가야의 정치적 향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531년 백제의 걸탁성(乞乞城) 영위 사건은 문헌기록이 고고학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헌사 연구로 본 백제의 걸탁성 영위 목적은 529년 안라의 주도로 개최된 고당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530년 전후 가야 남동부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백제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 evpopular@nate.com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걸탁성 추정지인 함안을 포함한 남강 하류지역의 고고학적 현상을 살펴보면, 다양한 종류의 백제계 문물이 돌연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전엽 백제계 문물의 출현은 남강 하류지역의 독특한 현상으로, 고령과 함천지역을 중심으로 웅진~사비기 백제식 묘제와 위세품이 출현하는 대가야권역 보다 빠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걸탁성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백제계 문물이 집중되는 양상으로 보아 현재 함안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백제가 걸탁성을 영위하게 된 목적과 배경을 고려하면, 마산·창원에서 함안 방면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이면서 신라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산인면 일대가 그 유력한 후보지라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6세기 전엽 백제가 가야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문헌기록의 일부를 고고자료에서도 밝혀낼 수 있었다. 다만, 그 방식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군사적 진출인지, 아니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령의 의미가 아닌 정치·외교적인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헌사와 고고학 분야에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 주제어

고고자료, 백제, 가야, 乞毛城, 남강, 함안

I. 머리말

475년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인해 개로왕이 전사하는 등 전쟁의 패배 끝에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당시 국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백제 지배층은 극심한 혼란기를 겪게 되었으나 동성왕을 거쳐 무령왕대에 이르러 혼란기를 극복하는 단계에 오르게 된다. 이때 국력을 회복한 백제는 6세기 전엽 호남 동부지역을 경계로 대가야와 공방전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대가야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6세기 전엽부터 대외교역 창구인 섬진강 하류지역을 포함한 호남 동부지역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가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¹⁾

이처럼 백제의 가야 진출 과정을 담은 문헌기록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이 『日本書紀』에 기록된 백제의 곁탁성(乞乞城) 영위와 관련된 내용이다.²⁾ 이 기사의 핵심은 신해(辛亥) 3월 백제 군대가 안라(安羅)에 진군하여 곁탁성에 주둔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신해년은 531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三國史記』에 기록된 고구려 안장왕의 사망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계체기의 일반 연대와 달리 위 기사의 연대는 그대로 따라도 무방할 것이다.³⁾ 이러한 백제의 곁탁성 영위 목적은 529년 안라의 주도로 개최된 고당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당시 가야 남동부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백제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⁴⁾

1)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이영식, 「문헌사학으로 본 가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6.

2)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5年 12月條, “或本云 天皇 廿八年歲次甲寅崩 而此云廿五年歲次辛亥崩者 取百濟本記爲文其文云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乞城 是月高麗弑其王安 又聞 日本天皇及太子皇子俱崩薨 由此而言 辛亥之歲 當廿五年矣 後勘校者 知之也.”

3) 김병남, 「성왕 초기 가야 지역의 상황과 백제의 대응」, 『韓國思想과 文化』 53, 韓國思想文化學會, 2010;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 푸른역사, 2002.

백제의 걸탁성 영위 사건은 6세기 전엽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가야를 노리고 있었던 신라를 포함하여 북쪽의 고구려와 바다 건너 왜 모두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대외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는 가야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⁵⁾ 또한, 이 사건은 6세기 이후 백제계 문물의 갑작스런 출현을 포함하여 당시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고고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걸탁성의 실존 여부와 그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우선 비교검토를 통해 기년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문헌기록의 내용을 특별한 근거 없이 부정하기 어렵고, 당시 백제는 신라를 견제함과 동시에 가야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그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걸탁성 영위 사건이라는 문헌사 연구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 기사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은 걸탁성의 정확한 위치와 함께 그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사 내용 중에 안라가 분명하게 표기되었기 때문에 현재 함안지역 일원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거타(居陶)와 걸탁(乞毛)의 음이 서로 비슷하여 진주지역로 보는 견해,⁶⁾ 그리고 백제가 대사(帶沙)로 진출한 것이 529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단 2년 사이에 함안지역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함안 서쪽지역(진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⁷⁾ 따라서 걸탁성의 정확한 위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대상 범위를 넓게 봐도 진주~함안지역이 위치한 남강 하류지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서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헌사 연구만으로는

4) 김병남, 앞의 논문(2010), 100~101쪽.

5) 金秉南, 「百濟의 加耶 進出과 ‘泗泚會議」, 『百濟研究』 5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2.

6) 이근우, 「웅진·사비기의 백제와 대가야」,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2003.

7) 남재우, 『安羅國史』, 해안, 2003.

풀어내기가 어렵고, 당시의 물질자료를 대상으로 한 고고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6세기 전엽의 진주~함안지역으로 이어지는 남강 하류지역의 고고학적 현상을 살펴보면, 대형 고분군을 중심으로 백제계 문물이 돌연 출현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며, 단순히 유물의 교류를 넘어 묘제(墓制)와 장제(葬制)와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⁸⁾

이에 본 연구는 백제의 걸탁성 영위 사건에 내재된 의미가 6세기 전엽 가야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면밀히 연구된 바가 없고, 이에 그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시의 물질자료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지금까지 진주~함안지역으로 연결되는 남강 하류지역의 고고자료 중 백제계 문물을 분석하여 걸탁성이 실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그 영위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고학적 현상으로 본 기사 내용의 실상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 乞乞城 추정지 주변의 고고학적 현상

1. 관고리와 장식판정의 출현

5세기 이래 가야지역에서는 수혈식석곽 내부에 목관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다. 당시의 목관은 관정과 꺾쇠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목관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바닥판과 측판의 접합 상태로 보아 운구하는 목관이 아닌 석곽 내부에 미리 설치된 목관으로 추정하고 있다.⁹⁾ 이러한 건

8) 김준식, 「加耶 横穴式石室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9.

9) 吉井秀夫, 「대가야계 수혈식석곽분의 “목관” 구조와 그 성격 -못·꺾쇠의 분석을 중심으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 紀念論叢』, 2000.

해의 가장 큰 이유인 목관의 크기 문제는 5세기대 가야 고분 내 부장품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피장자의 권위 및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개별 고분의 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고분 내 매장시설인 수혈식석곽도 최대 10m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내부에 사용된 목관 또한 대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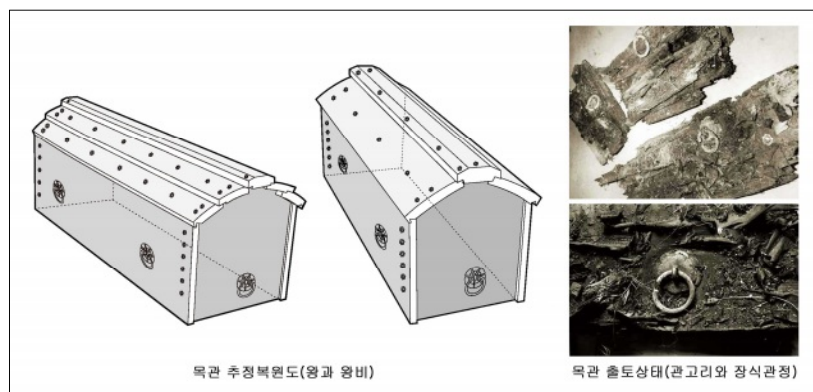
지금까지 관찰된 고고학적 현상만으로 당시 실제로 목관을 미리 설치하였는지 아니면 운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히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길이 3m 내외의 대형 목관을 빈소에서부터 운구하여 주로 구릉의 능선부에 입지한 고분의 석곽 내부로 진입하기란 매우 힘든 과정이었을 것이다.¹¹⁾ 따라서 석곽 내 목관의 크기를 고려하면 특정 지점에서부터 운구하여 고분까지 한 번에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피장자가 고분에 최종적으로 매장되기까지 별개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빈소에서 장지까지 피장자를 옮기는 과정, 그리고 장지에서 고분 내 석곽(미리 설치된 목관)으로 피장자를 옮기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행해졌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관의 사용 시기는 고령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해 함양 백천리고분군, 합천 반계제고분군, 남원 두락리고분군 등 당시 대가야권역 고분군을 중심으로 관정과 꺾쇠가 동시에 출토된 것으로 보아 대략 5세기 전엽 이후로는 수혈식석곽 내부에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5세기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관고리가 6세기 전

10) 당시 대형 수혈식석곽으로는 고령 본관동36호분(1010cm)과 지산동44호분(940cm), 남원 월산리M1호분(865cm)과 두락리1호분(860cm), 함양 백천리1호분(735cm)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 사용된 목관의 규모는 길이 300cm 내외로 추정되며, 함양 백천리1호분의 경우 목관의 길이가 440cm일 가능성도 있다(吉井秀夫, 앞의 논문(2000), 249쪽).

11) 운구한 것이 확실한 무령왕릉 출토 목관의 경우 왕비를 기준으로 덮개(뚜껑) 길이 262cm, 본체 길이 240cm(내부 232cm)로 조사되었다. 이는 5세기대 가야 고분에서 확인된 목관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에 해당한다(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三和出版社, 1974).

업으로 편년되는 남강 하류지역의 횡혈식석실을 중심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횡혈식석실이 출현한 이후로는 관고리를 결속구로 사용하여 피장자를 운구하는 목관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며 그 기원을 웅진기 백제 횡혈식석실에서 찾는 견해가 주목된다.¹²⁾ 6세기 이전의 가야 고분에서는 관고리의 출토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과 달리 백제에서는 이미 한성기부터 목관에 관고리를 부착하여 운구하는 장례문화가 있었고,¹³⁾ 이는 웅진기를 거쳐 사비기까지 계속 확인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 무령왕릉 출토 목관 추정복원도 및 출토상태(국립공주박물관, 2012)

운구하는 목관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가야 고분 내 출토품 중에서 구체적으로 복원한 사례가 없어 확실시하기가 어렵다. 다만, 현재 복원되어 있는 무령왕릉 왕비의 목관 규모와 위계를 당시의 최대치라 생각하면 미리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5세기대 목관 보다는 확실히 작은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횡혈식석실의 경우에도 운구의

12) 洪潛植, 「嶺南地域 横口式・横穴式石室墓의 型式分類와 編年」, 『嶺南考古學』 12, 嶺南考古學會, 1993; 吉井秀夫, 「百濟の木棺 -横穴式石室出土例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 542, 立命館大學, 1995.

13)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2005.

가능성이 있는 관고리가 부착된 목관의 크기가 대개 피장자의 신장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정도라는 점에서¹⁴⁾ 실제 운구하는 목관과 미리 설치된 목관의 크기 차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야 고분 내부에서 관고리의 출현은 곧 운구하는 목관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현상으로, 6세기 이후 가야의 장례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처럼 새로운 장례문화의 출현은 가야 전체가 아닌 의령 중동리고분군,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 함안 말이산(도항리)고분군 등 남강 하류지역의 대형 고분군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이 주목되는데, 주로 횡혈식석실 내부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6세기 전엽 이 일대 지배층의 묘제와 장제의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1〉 남강 하류지역 관고리와 장식관정 현황표

유적명	매장시설	출토현황	조사기관(조사연도)
의령 중동리4호	횡혈식석실	관정(흑칠), 관고리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
진주 수정봉2호	횡혈식석실	관정(은판장식), 관고리	조선총독부(1910) 경상문화재연구원 (2020)
함안 남문외11호	횡혈식석실	관정(은판장식)	경남발전연구원 (2015)
함안 도항리4호 ¹⁵⁾	횡혈식석실	관정(은판장식 가능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3)
함안 도항리5호	횡혈식석실	관정(은판장식)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3)
함안 도항리8호	횡혈식석실	관정(은판장식)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3)
함안 도항리47호	횡혈식석실	관정(은판장식 가능성), 관고리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5)

14) 吉井秀夫, 앞의 논문(1995).

15) 4호분의 봉토 내 배장곽(수혈식석곽)에서 은판장식의 가능성이 있는 관정이 금제이식과 함께 출토되었다.



도면 2. 함안지역 고분 출토 장식관정 및 관고리

그리고 남강 하류지역 횡혈식석실에서 관고리와 함께 장식관정이 출현하는 것 역시 운구하는 목관의 사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목관을 접합하는데 필수인 관정의 장식은 보통 머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원형 또는 원형의 머리 부분을 금판이나 은판으로 씌워서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정의 머리 부분을 꽃잎의 형태로 제작하여 장식성을 극대화한 사례도 있다.¹⁶⁾ 이러한 장식관정의 사용 목적은 목관의 외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일 것인데, 실제로 운구하는 목관이 사용된 백제 지배층 고분(횡혈식석실)에서는 장식관정을 사용한 사례가 종종 관찰되고 있다. 특히, 무령왕릉 출토 목관은 옷칠한 금송(金松)의 외면에 금동으로 제작한 관고리와 금·은으로 장식한 다양한 형태의 관정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여 백제 목관 장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16) 무령왕릉의 목관은 관고리도 꽃잎의 형태로 제작한 받침을 사용하여 장식성을 더하였다.

있다.

이처럼 화려한 장식의 목관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장송의례 과정에서 운구하는 목관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된다. 즉, 입관의례, 매장례, 음식의례 등을 포괄하는 장송의례 과정 중 목관은 상시 노출될 수 있고, 장지에서 실제 고분 내부로 운구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더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화려하게 장식된 목관의 운구는 피장자의 권위를 사후세계와 연결하기 위한 장송의례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례문화는 가야 고분의 전통적인 양상과는 거리감이 있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백제로부터 전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6세기 전엽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장식관정은 남강 하류지역 중에서도 특히 함안지역 횡혈식석실에 집중되고 있다.¹⁷⁾

2. 청동용기의 출현과 모방토기의 제작

5~6세기 경주지역 중심의 신라고분에서 주로 확인되는 청동용기는 가야고분에서도 지배층 묘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종은 대부분 청동완(盪)의 형태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동명(甁)·청동합(盒)·청동고배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출현 시점은 청동용기가 출토된 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합천 옥전M3호분의 연대를 고려하면 대략 5세기 후엽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분포 현황은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과 저포리고분군, 의령 경산리고분군 등 주로 대가야권역에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고, 이외에는 남강 하류지역의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 남해안의 고성 송학동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다.

17) 함안 말이산고분군(과거 도항리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의 횡혈식석실 내부에서 관고리와 함께 장식관정이 다수 출토되었다. 함안 도항리4호분과 47호분 출토품의 경우에도 관정의 머리 부분 형태로 보아 최초에는 장식된 상태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8) 朴天秀,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가야고분 출토 청동용기의 계보를 살펴보면, 우선 청동완의 경우 가야 지배층이 6세기 이후 백제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형태적으로도 신라계통으로 보기 어려울을 지적하고 있다.¹⁹⁾ 구체적으로는 무령왕릉의 왕비 주변 출토품과 비교하여 당시 백제에서 제작되어 대가야에 제공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⁰⁾ 한편, 당시 백제와 가야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6세기 이전부터 가야고분에서 청동완이 출토되는 점에 착안하여 5세기 후엽 중국 남조와 가야의 직접적인 교류의 결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는데,²¹⁾ 형태적으로도 중국 남조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²²⁾ 여기서 중국 남조와 가야의 직접적인 교류와 관련해서는 479년 남제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²³⁾ 호남 동부지역의 대가야 고분군인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계수호(鷄首壺)의 존재로 보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 다만,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6세기 이후의 청동완은 5세기 후엽과 달리 무령왕릉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이때부터는 백제와 직접 관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⁴⁾

청동합과 관련해서는 경주 황룡사지 서금당 출토품과 비교하여 형태적으로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다.²⁵⁾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및 황룡사의 완성시기(569년), 금당의 완성시기(584년) 등을 고려하면²⁶⁾ 추가장을

19) 李盛周, 「가야와의 문물교류」, 『백제의 문물교류』, 百濟文化史大系研究叢書 1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20) 李漢祥, 「武寧王陵出土品追報(2)-銅製容器類-」, 『考古學誌』 6,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4.

21) 권오영, 「葬制와 墓制를 통해 본 加耶와 中國 南朝」, 『慶南의 加耶古墳과 東亞細亞』,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22) 桃崎祐輔, 「日本の蓋付銅鏡及び承台の系譜と年代」, 『무령왕시대의 동아시아 세계』, 국립공주박물관, 2014.

23) 『南齊書』 卷58, 列傳39, 加羅國.

24) 김준식, 「가야고분 출토 청동완의 분포와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3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25) 金鎮台, 「新羅 金屬盒의 變遷樣相과 意味」,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6)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염두에 두더라도 대가야 멸망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대각이 부착된 청동완과 비교한 사례도 있다.²⁷⁾ 따라서 아직은 어느 쪽으로도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청동합이 출토된 진주 수정봉2호분의 매장시설과 출토유물에서 백제의 영향이 관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흐름에서 청동합의 존재 또한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동고배는 고성 송학동1C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형태적으로는 신라고배와 유사하다. 이는 6세 이후 신라계 문물(토기, 마구)이 고성지역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청동고배의 출현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²⁸⁾

한편, 진주 수정봉3호분 출토유물 중에서 청동잔(盞)으로 추정되는 유물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비교하여 6세기 전엽 남강 하류지역에 백제계 문물이 다수 유입되는 현상에 주목한 사례가 있다.²⁹⁾ 이와 관련해서는 1910년 조사된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 출토유물 중 일부를 실측하여 재보고할 당시에도 이 추정 청동잔을 주발(椀)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³⁰⁾ 만약, 이를 청동잔으로 볼 수 있다면 남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에서는 복수의 청동용기가 부장되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청동용기가 복수 부장되는 것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청동용기를 모방하여 제작한 토기의 존재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나주 복암리1호분 출토품 등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과 받침대를 모방한 토기(녹유)에서 볼 수 있다.³¹⁾ 청동용기를 모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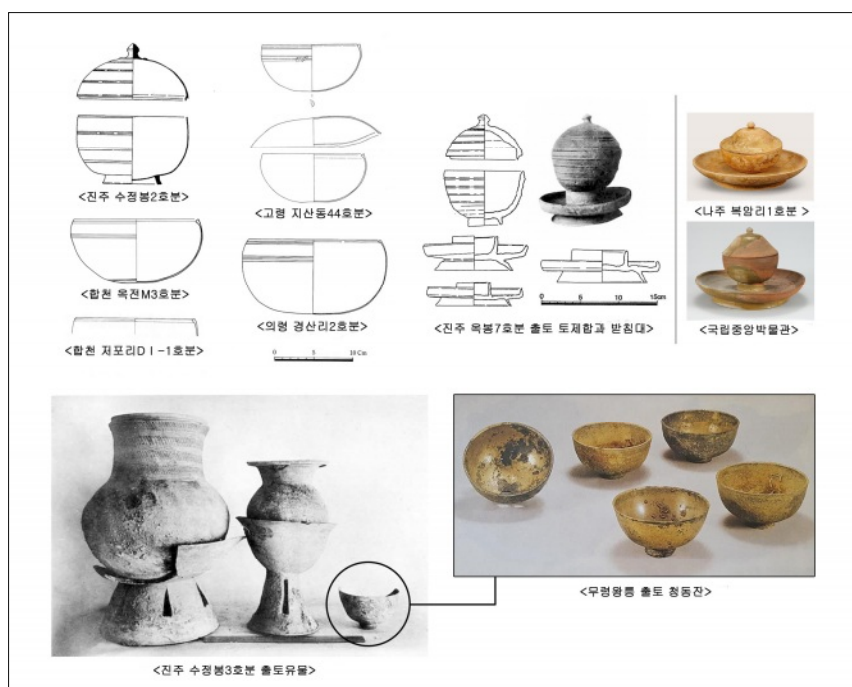
27) 김준식, 앞의 논문(2019), 135쪽.

28) 河承哲, 「5~6世紀 固城地域 古墳文化의 理解」,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29) 김준식, 「가야 세장방형 횡혈식석실의 출현배경과 발전양상」, 『한국고고학보』 102, 한국고고학회, 2017.

30) 이 추정 청동잔은 현재 사진 자료만 남아있고, 실물은 행방불명 상태이다(定森秀夫外, 「韓國慶尙南道晉州 水精峰2號墳・玉峰7號墳出土遺物」, 『加耶通信』 19・20, 1990).

토기는 진주 옥봉7호분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청동합을 모방하여 제작한 토제합을 비롯하여 합 의 받침대를 모방한 토제받침대도 확인되었다. 이는 의도성을 가지고 청동용기를 토제품으로 모방·제작한 것이 분명하고 특히, 합 의 받침대가 여러 점 확인되는 것에서 복수의 모방토기가 부장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청동용기를 토제품으로 모방하여 제작한 사례 또한 가야지역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현상으로, 아직은 남강 하류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도면 3. 5~6세기 가야고분 출토 청동용기와 모방토기 비교자료

31) 周旻美, 「武寧王陵出土 銅托銀盞의 研究」,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II)-』, 국립공주박물관, 2006.

3. 횡혈식석실의 출현과 새로운 葬制의 수용

가야지역에서는 6세기 전엽부터 각 지역의 지배층 묘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혈식석곽을 대신하여 횡혈식석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³²⁾ 횡혈식석실은 추가장이 가능한 구조로, 최초 축조된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피장자가 안치되는 공간인 현실(玄室),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통로인 연도(羨道)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완전밀폐의 개념에 따라 한 번 매장행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추가장이 불가능한 수혈식석곽과는 매장관념과 구조에서 차이가 크다.

이러한 횡혈식석실의 출현과 발전은 한반도를 포함한 고대 동아시아 고분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바 특히, 수혈식→횡혈식으로의 묘제 변화는 대부분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수용 시기와 발전 단계의 차이는 있으나 거대 고분을 축조한 고대 동아시아 각 국의 지배층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묘제가 횡혈식석실이란 점은 분명하다. 이에 횡혈식 묘제는 종래의 수혈식 묘제의 전통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내세관을 의미하고, 나아가 율령지배와 관계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³³⁾ 그리고 횡혈식석실의 등장은 단순한 묘제와 장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조직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적 변화까지 인정해야 한다.³⁴⁾ 결과적으로 수혈식석곽에서 횡혈식석실로의 전환은 새로운 고분 축조 기술 및 집단(공인)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배층의 동향과 정치적 향방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32) 가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6세기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횡혈식석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가야뿐만 아니라 당시 경주를 포함한 신라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영남지방에서 6세기 이전으로 볼만한 것은 고구려 영향을 강하게 받은 포항 냉수리고분 등 포항과 경산지역 등에서 예외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33) 권오영, 「고구려 횡혈식석실분의 매장 프로세스」,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34) 성경용,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6세기 전엽 가야 지배층 고분에도 반영된다. 주지하듯이 횡혈식석실 출현 이전의 가야 고분 내 묘제는 거의 대부분 수혈식석곽으로 확인되고, 거대 고분의 축조와 함께 토기를 비롯한 각종 부장품의 후장(厚葬), 고분 내외부에서 행해진 순장(殉葬), 그리고 주곽과 부곽 등 복수의 매장시설로 구성된 다곽식(多槨式) 구조가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관가야(김해 대성동고분군), 아라가야(함안 말이산고분군), 대가야(고령 지산동고분군), 소가야(고성 송학동고분군)의 가야 각 권역별 최고지배층 묘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수혈식석곽은 가야의 보편적인 묘제임과 동시에 가야를 대표하는 묘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세기 이래 수혈식석곽이 활발히 축조되던 가야 고분에서 6세기 전엽부터 추가장이 가능한 횡혈식석실의 등장은 단순한 묘제의 변화를 넘어 지배층을 중심으로 장제(葬制)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동반되었음을 말해준다.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은 현실의 단벽 중앙에 연도가 부착된 중앙연도 구조와 세장방형 평면형태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³⁵⁾ 이러한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은 소위 수정봉식(水精峰式)으로 불리고, 이는 좌·우편재연도 구조와 장방형 평면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고아동식(古衙洞式)과 구분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가야 횡혈식석실을 분류할 때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³⁶⁾ 세부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벽체와 천장의 형태가 사다리꼴(梯形)과 유사하고, 바닥은 역석(礫石)과 판상할석을 사용하여 전면시상으로 조성한 경우가 많으나 일부에서는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대석이 1~2쌍 세트를 이루며

35) 횡혈식석실 연구에서 세장방형 평면형태의 기준은 대개 평면 장단비 2.5:1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다(山本孝文, 「伽倻地域 横穴式石室의 出現背景 -墓制 變化의 諸側面에 대한 豫備考察-」, 『百濟研究』 3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1).

36) 曹永鉉, 「三國時代 横穴式石室墳의 系譜와 編年研究 -漢江 以南 地域을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洪潛植,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2002; 河承哲, 「伽倻地域 石室의 受用과 展開」, 『伽倻文化』 18, 伽倻文化研究院, 2005; 김준식, 앞의 논문(2017).

확인되고 있다.³⁷⁾ 연도는 현실 길이의 절반 정도로 축조된 사례가 많아 석실의 전체적인 구조만 보면 수혈식석곽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분포현황은 의령·진주·함안 등 남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이외 고성 내산리고분군에서 일부 확인된 것을 제외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 즉, 대가야권역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고, 남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아라가야와 소가야권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최근 이 일대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의 말이산(도항리)고분군을 비롯하여 남문외고분군 등 함안지역에서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이 집중적으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현실 길이 7m 이상의 대형 석실도 이곳에서 확인되고 있다.³⁸⁾

주지하듯이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의 축조 시기는 6세기 전엽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가야 각 권역의 토기가 모두 출토되어 병행관계 파악에 유리한 함안 도항리47호분 출토 토기와 주변의 대가야 양식 토기를 중심으로 편년하여 6세기 2/4분기 이른 시기 즉, 530년 전후로 그 출현 시기를 구체화하였다.³⁹⁾

이러한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수혈식석곽 중앙 단벽에 연도만 부착된 구조로 볼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수평적 매장행위를 위해 매장시설이 지하식→(반)지상식으로 이동하게 된다.⁴⁰⁾ 이때 지상으로 드러난 석실 벽체와 봉토를 동시에 축조하면서 현실 바깥으로 연결되는 연도까지 조성하는 기술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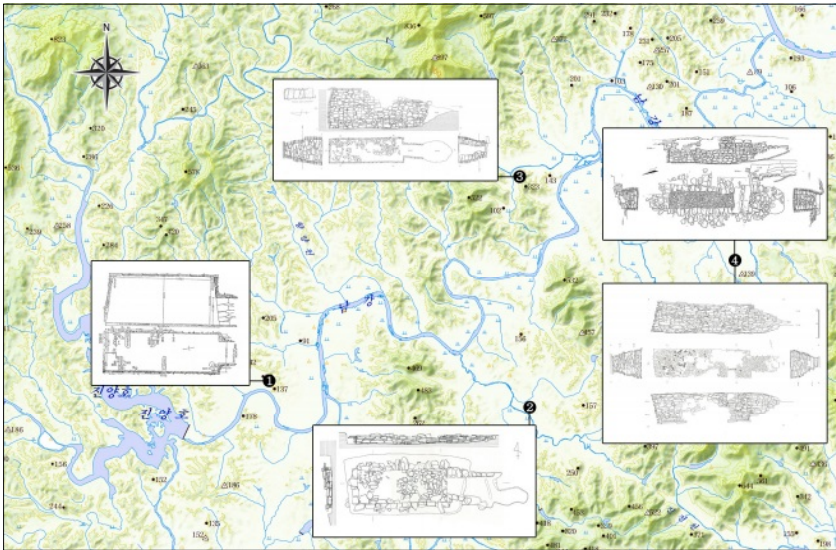
37) 진주 수경봉2호분 현실 내부에서 관대석 2쌍(총 4매)이 확인되어 실제로 운구하는 목관을 사용한 매장행위가 이루어졌고, 시간차를 두고 추가장까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38)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 2017; (財)三江文化財研究院, 『咸安 南門外古墳群 -6·7·15號墳 및 2구역 시·발굴조사 보고서-』, 2021.

39) 김준식, 앞의 논문(2019), 62쪽.

40) 수혈식은 매장행위가 위→아래 방향으로 수직적인 반면, 횡혈식은 연도→현실 방향으로 수평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장을 생각하면 후대에 입구를 개방하는 것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견고하게 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⁴¹⁾ 따라서 가야지역에서 (반)지상식의 개념인 횡혈식석실의 출현은 지하식인 수혈식석곽의 축조 수준을 능가하는 고난도 고분축조 기술이 등장함과 동시에 추가장이라는 새로운 장제의 수용을 의미한다.



도면 4. 남강 하류지역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 분포도(김준식, 2019)

①진주 수정봉2호분, ②진주 무촌리5호분, ③의령 중동리4호분,
④함안 도항리47호분과 남문의11호분

이처럼 중앙연도 구조와 세장방형 평면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출현기

41) 석실 벽체가 동시에 축조될 경우 토압을 고려하여 수직보다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서서히 내경하는 제형구조가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횡구·횡혈식석실 등 (반)지상식으로 축조된 횡혈계 묘제 중에서 세장방형 평면형태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다수 관찰된다.

가야 횡혈식석실의 등장은 백제계 문물의 유입과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6세기 전엽의 백제는 웅진기에 해당하고, 당시 백제 지배층은 좌·우편재연도 구조의 방형 평면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횡혈식석실을 축조하였다. 이는 당시 왕과 귀족들의 묘역인 공주 송산리고분군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으로, 현실 천장과 벽체 구조도 네 벽이 상부에서 모두 조여지는 궁륭형으로 설계되었다. 사실 이러한 구조는 출현기가야 횡혈식석실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백제 횡혈식석실의 발전단계에서 중앙연도와 장방형 평면형태의 출현 시점이다.

<표 2> 남강 하류지역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 현황표

유적명	현실			연도 위치	비고
	평면규모 (cm)	평면비율 (길이:너비)	평면적 (㎡)		
의령 중동리4호	465×150	3.10:1	6.96	중앙	관정(장식), 관고리
진주 수정봉2호	540×175	3.09:1	9.45	중앙	관정(장식), 관고리, 청동합
진주 수정봉3호	532×178	2.99:1	9.47	중앙	청동잔(추정)
진주 무촌리5호	540×200	2.70:1	10.80	중앙	관정
함안 남문외6호	740×280	2.64:1	20.72	중앙	관정
함안 남문외7호	510×180	2.83:1	9.18	중앙	관정
함안 남문외11호	700×200	3.50:1	14.00	중앙	관정(장식)
함안 도항리4호	530×175	3.03:1	9.28	중앙	관정(장식?)
함안 도항리5호	500×160	3.13:1	8.00	중앙	관정(장식)
함안 도항리8호	500×135	3.70:1	6.75	중앙	관정(장식)
함안 도항리47호	490×180	2.72:1	8.82	중앙	관정(장식?), 관고리

백제 웅진기 횡혈식석실의 변천을 보면 그 중심에는 무령왕릉으로 대

표되는 전축분(塹築墳)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식의 횡혈식석실이 출현하는가 하면, 기존에 공주지역에서 축조된 소위 송산리식 횡혈식석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⁴²⁾ 무령왕릉 입구에서 출토된 지석의 내용을 보면 523년 5월 사망한 왕은 525년 8월에 매장되고, 이후 526년 12월 사망한 왕비의 추가장이 이루어지면서 무덤 내 매장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은 529년 2월이다.⁴³⁾ 따라서 백제는 전축분이 출현한 6세기 전엽부터 중앙연도 구조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⁴⁴⁾ 현실의 평면형태가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하는 현상도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⁴⁵⁾ 아울러 전축분의 터널형 벽체와 천장구조는 웅진기 말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성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⁴⁶⁾ 우편재연도 구조와 장방형 평면형태, 터널형 천장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의 출현 시점을 공주와 부여지역 횡혈식석실과 비교하며 웅진기 말에서 사비기 초에 걸친 시기로 보는 견해도 이러한 부분에 착안한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결과적으로 6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은 남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중앙연도와 세장방형 평면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 출토된 장식관정과 관고리는 현실 바닥에 마련된 복수의 관대석과 관련하여 당시 운구하는 목관이 사용되었음을 물론 추가장까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42) 洪潛植, 「공주지역 백제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변천」, 『百濟文化』 4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43) 권오영, 앞의 책(2005).

44) 강현숙, 「百濟 橫穴式石室墳의 展開過程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34, 한국고고학회, 1996.

45) 洪潛植, 앞의 논문(2013).

46) 曹永鉉, 앞의 논문(1990); 吉井秀夫, 「朝鮮半島錦江下流域の三國時代墓制」, 『史林』 七十四卷一號, 史學研究會(京都大學文學部), 1991.

47) 김준식,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의 성격과 대가야 지배층」, 『한국상고사학보』 101, 한국상고사학회, 2018.

Ⅲ. 고고자료로 본 乞乞城 영위 사건의 실상

1. 백제계 문물의 출현배경과 이동경로

6세기 전엽 가야지역에서 백제계 문물이 적극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의령·진주·함안지역 등 남강 하류지역으로, 백제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모두 확인되었다. 위 지역들은 당시 가야권역으로 구분하면 소가야와 아라가야권역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당시 가야의 맹주인 대가야권역에서는 백제계 문물의 출현 빈도수가 많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호남 동부지역을 경계로 백제와 접경하고 있는 대가야권역에서도 당시 백제계 문물이 확인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묘제나 장제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나사현(任那四縣) 문제 또는 기문(己汶)·대사(帶沙) 사건 등 510년대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싸고 발생한 백제와 대가야의 공방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데,⁴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흔적들이 고고자료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인되고 있다.⁴⁹⁾ 여기서 백제에게 밀려난 대가야는 신라와 일시적이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점이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등 문헌기록⁵⁰⁾과 당시 낙동강 하류지역의 고고학적 현상에서 확인되기 때문에⁵¹⁾ 백제와 대가야의 갈등 관계를 가장 유력한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가야와 신라의 관계는 결혼동맹 파기와 함께 김해와 창원을 포함한 낙동강 하류지역 등 가야 남동부지역에 대한 신라의 노골적인 진출에 의해 일단락된다.⁵²⁾ 이는 당시 이 일대의 고고자료에서 대가야

48)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金秉南,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軍史』 6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49) 朴天秀,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加耶와 百濟-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65, 한국상고사학회, 2009.

5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法興王 9年條.

51) 6세기 전엽 대가야양식 토기와 이식 등의 대가야계 문물이 창원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이러한 현상은 532년 금관가야 멸망 무렵까지 계속 진행된다.

계 문물의 쇠퇴와 이를 대신하여 신라계 문물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무렵부터 대가야와 신라는 본격적으로 낙동강이 경계가 되어 서로 대치하게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6세기 중엽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대가야 지배층은 백제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이고, 바로 앞 시기 남강 하류지역의 수용양상과 비교하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6세기 중엽이 되면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인접하여 백제 공인이 직접 참여한 고아동벽화고분이 축조되고, 이를 번안한 소위 고아동식형혈식석실이 대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권역 내 거점지역에서 확인되며, 합천 옥전M11호분에서 다수의 백제계 금공품이 확인되는 등 고고학적 현상으로 본 당시 대가야와 백제의 관계는 매우 긴밀했다.⁵³⁾ 즉,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와 백제의 교류 관계는 남강 하류지역 사례와 달리 피장자의 위계와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위세품적 성격의 문물이 출현하였고, 당시 공주 및 부여지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축분을 모방한 형혈식석실이 출현하는 등 백제 지배층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 부분은 대가야의 대내외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백제문화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보면서,⁵⁴⁾ 나아가 국가적 성장을 기원하는 대가야에게 백제문화는 선진적인 본보기로 보였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⁵⁵⁾ 따라서 고고학적 현상으로 본 6세기 중엽의 대가야는 지배층의 주도하에 백제 지배층이 소유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배경으로 백제와의 외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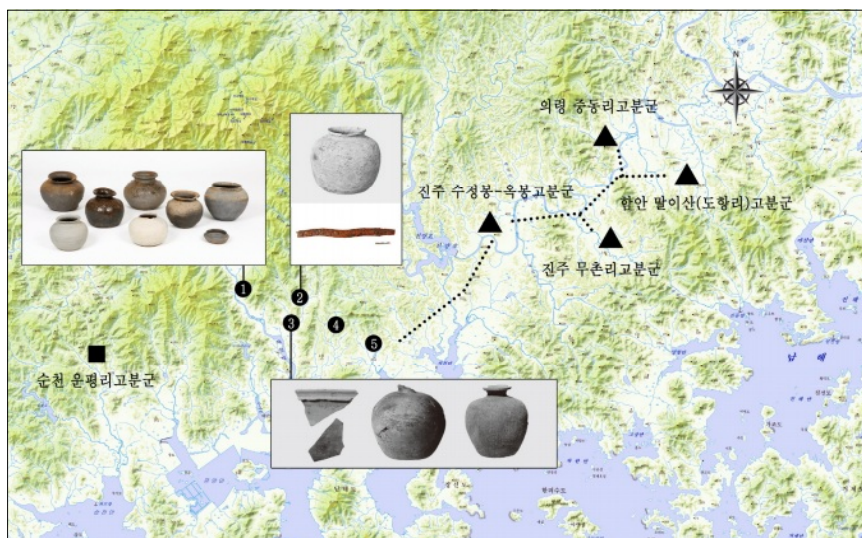
52) 결혼동맹 파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신라인의 변복 사건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실상은 대가야와 신라의 외교·군사적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신라의 가야 남동부지역 진출은 매우 치밀했음을 알 수 있다(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53) 김준식, 앞의 논문(2019).

54) 李盛周, 앞의 논문(2007).

55) 盧重國, 「大加耶의 성장기반」,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高靈郡·韓國古代史學會, 2004.

그러나 대가야 사례처럼 특정 세력의 주도로 보기 어려운, 그리고 지배층의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보다 앞선 시기에 남강 하류지역에서 백제계 문물이 돌연 출현하는 것은 역시 이례적인 현상이다. 즉, 6세기 전엽 남강 하류지역에 분포하는 백제계 문물은 당시 아라가야와 소가야권역에 걸쳐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주도한 세력을 어느 한 곳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강 하류지역에 백제계 문물이 분포하게 된 경위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면 5.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섬진강-남강 하류지역 백제계 문물 이동경로
(김준식, 2019)

①하동 홍룡리고분군, ②하동 남산리184-9·10번지 유적, ③하동 동산리유적,
④하동 우북리유적, ⑤하동 고이리유적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가야의 경우에는 6세기 전~중엽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지배층의 요청에 의해 백제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대가야 중심지인 고령지역에서부터 백제계 문물이 강하게 확인

되고, 곧이어 주변의 합천 동부와 서부, 의령 북부 등 거점지역으로 이러한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남강 하류지역의 양상은 특정 권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강을 따라 진주에서 함안까지 이어지는 경로에 위치한 대형 고분군을 중심으로 백제계 문물이 수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가야 사례와 같이 소가야나 아라가야 지배층의 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백제계 문물이 수용된 이후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여기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남강 하류지역 백제계 문물의 이동 경로와 수용의 정도가 한쪽 방향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즉, 서쪽의 진주보다는 동쪽의 함안지역에서 백제계 문물이 출토된 사례가 많고, 종류도 더 다양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함안과 동쪽으로 인접한 마산과 창원지역에서는 백제계 문물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여기서 백제계 문물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6세기 이전 섬진강 하류지역의 고고학적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해안에 인접한 섬진강 하류지역은 적어도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직후까지는 대가야권역에 포함되었으나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공방전의 결과에 따라 백제에게 빼앗긴 지역으로, 대가야 해상교역의 핵심 창구이자 거점 항구의 기능을 수행한 곳이었다.⁵⁶⁾ 이는 백제 입장에서든 남해안 동쪽의 해상교역 루트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본열도(倭)와 해상을 이용한 접근성도 탁월해졌으며, 사천만을 지나서 진주 방면의 내륙으로 곧장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6세기 전엽 이곳을 차지한 백제는 해상교역 루트의 다원화와 함께 동쪽의 낙동강 방면을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⁵⁷⁾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은 6세기 이후 백제 영향권에 속해 있음은 분명하나 하동 홍룡리고분군과 남산리유적에서 확인된 고고학적 현상으로 보아 6세기 이후에도 대가야 문화가 잔존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토기 등의 백제계 문물이 서서히 출현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백제가

56) 朴天秀, 앞의 논문(2009).

57) 노중국 外, 『대가야 들여다보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이 일대를 차지한 직후부터 대가야 문화가 일시에 사라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5~6세기 대가야와 소가야 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순천 운평리고분군⁵⁸⁾을 제외하면 가야 고분문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면서 고분군의 축조도 거의 중단되기 때문에 6세기 전엽 어느 시점 이후로는 완전히 백제 영향권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전후한 시기부터 백제계 문물이 섬진강 하류지역에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며 하동을 거쳐 사천만 서쪽 일대까지 확대되는 양상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6세기 전엽이 되면 남강 하류지역으로 백제계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양상인데, 대가야를 거치지 않고 그보다 먼저 백제계 문물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2. 乞屯城 영위 사건의 역사적 의미

섬진강에서 남강 하류지역으로 이어지는 범위의 고고학적 현상과 함안지역으로 백제계 문물이 집중되는 양상으로 본 백제의 걸탁성 영위 사건은 이제 문헌기록과 고고자료의 교차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531년으로 기록된 것 역시 고고자료의 편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년 또한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6세기 전엽 진주~함안지역에서 확인된 백제계 문물의 성격은 걸탁성 영위 사건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문헌의 내용을 증명하는 고고자료로 판단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걸탁성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백제가 이를 시행한

58) 운평리고분군은 일시적으로 대가야 금제이식과 토기 등이 다수 확인되었으나(5세기 후엽), 이와 별개로 소가야 중심지인 고성지역과 5세기 이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6세기 이후에도 소가야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동희, 「全南 東部地域 加耶文化의 起源과 變遷」, 『百濟文化』 4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1).

목적과 함께 530년을 전후하여 이미 창원분지까지 신라계 문물이 대거 유입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⁹⁾ 당시 가야 남동부지역을 차지한 신라가 마산·창원방면에서 함안을 포함한 남강 하류지역으로 신속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서읍에서 칠서면의 남북 방향으로 연결되는 산지 사이에 형성된 곡간지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함안의 동쪽 경계와 인접한 내서읍 중리 일대는 마산·창원과 함안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길목으로, 신산천과 검안천을 따라 산인면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면 함안 중심부로 곧장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에 해당한다. 이곳으로 통하는 길목에는 산정부를 감싼 테피식 구조인 6세기 전엽의 포덕산성을 비롯해 문암산성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는데, 방어에 탁월한 입지와 조망권, 그리고 협곡을 사이에 두고 축성된 관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함안 중심부로 통하는 교통로를 통제하기 위한 최적의 방어선에 해당한다.⁶⁰⁾

백제 입장에서 신라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함안 동쪽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함안 동쪽 경계에 위치하여 마산·창원 방면의 내서읍 중리 일대를 조망하는 포덕산성을 걸탁성의 후보지로 보기도 한다.⁶¹⁾ 즉, 성곽의 입지와 조망, 교통로 등을 고려하면 신라계 문물의 확산 범위와 경계를 이루는 함안 동쪽의 내서읍과 인접한 산인면 일대를 걸탁성이 위치한 유력한 후보지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이 일대에서 백제와 관련된 흔적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불과하다. 이처

59) 朴天秀, 앞의 책(2018).

60) 포덕산성은 함안지역 내 동일한 형태의 성곽 중에서 성벽의 규모나 축조수법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함안 북쪽의 남강과 낙동강 방면에서는 아라가야 성곽이 확인되지 않아 마산과 창원지역으로 통하는 동쪽 방면에 주요 방어선을 구축하여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安城賢, 「慶南地域 古代 城郭의 考古學的 研究」,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61) 朝鮮總督府,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 徐榮教, 「阿羅 波斯山 신라 城의 위치와 城山山城 축조시기」, 『한국고대사탐구』 2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7.

럼 결탁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으나, 백제계 문물의 분포양상 등 고고학적 현상으로 보아 결탁성의 위치는 현재 함안지역 내에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결탁성 영위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진출의 개념으로 이해한 경우가 있었다.⁶²⁾ 그러나 고고학 연구에서 말하는 진출이란 대개 특정 세력의 확장 또는 복속을 위한 군사적 행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이동’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백제의 결탁성 영위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강 하류지역에서 백제의 영향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지만 실제로 함안지역에 백제군이 어떠한 형태로 영위하였고 또는 주둔하였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백제군이 섬진강 하류지역에서부터 진주를 거쳐 함안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 백제군이 기존의 결탁성에 주둔하였는지, 아니면 결탁성을 새로이 축성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무력충돌 등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군사적 진출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서진하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령의 의미에서 벗어나 정치·외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무력충돌 여부와 관련해서는 남강 하류지역에서 확인된 백제계 문물의 분포가 대형 고분군을 중심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는 해당지역 유력자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아울러 중소규모의 고분군 및 취락유적에서 아직까지 백제계 문물이 확인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무력충돌로 인해 해당지역을 완전히 백제화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백제가 대가야를 제압하고 호남 동부지역을 차지한 뒤 이 일대에서 나타나는 고고학적 현상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2) 김준식, 앞의 논문(2017).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는 6세기 전엽으로 추정되는 왕릉급 고분인 37호분이 축조되는 등 아라가야 지배층의 문화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남강 하류지역의 경우에도 백제계 문물이 흡수되는 양상이나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가야 고분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백제는 기존의 지배 체제를 인정하면서 내부에 군사적 거점을 확보·통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견해도 있으니⁶³⁾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고고자료의 확보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걸탁성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백제군이 주둔하였다면 적어도 걸탁성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된 취락의 흔적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걸탁성이 백제에 의해 축성된 것이라면 백제식 성곽의 축조방식과 관계된 흔적이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고학적 현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문제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IV. 맺음말

6세기 백제의 가야 진출과 관련된 부분은 당시 가야의 정치적 향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헌사와 고고학 분야 모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이와 관련된 문헌기록 중에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日本書紀』에 기록된 백제의 걸탁성 영위 사건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헌사 연구로 본 백제의 걸탁성 영위 목적은 529년 안라의 주도로 개최된 고당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당시 가야 남동부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백제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백제의 걸탁성 영위 사건이 6세기 전엽 가야사에서 중요하게 인식된 이유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백제 지배층의 목적이 반영됨과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

63)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된 고고자료를 살펴보면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연결 고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걸탁성 추정지인 함안을 포함한 남강 하류지역의 고고학적 현상을 살펴보면, 관고리와 장식관정, 청동용기와 모방토기, 황혈식석실과 추가장 등 다양한 형태로 대변되는 백제계 문물이 돌연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세기 전엽 백제계 문물의 출현은 남강 하류지역의 독특한 현상으로, 고령과 함천지역에서 웅진~사비기 백제식 묘제와 위세품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대가야권역 보다 빠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걸탁성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나, 백제계 문물이 집중되는 양상으로 보아 현재 함안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백제가 걸탁성을 영위하게 된 목적과 배경을 고려하면, 마산·창원에서 함안 방면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이면서 신라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함안 동쪽의 산인면 일대를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출현기 가야 황혈식석실인 남문외11호분에서는 장식관정과 함께 백제 삼족기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족배(연질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남강 하류지역에서 백제의 영향을 받은 묘제와 장제의 출현, 그리고 청동용기라는 특수한 형태의 물질자료 외에도 백제를 대표하는 토기까지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남강 하류지역에서 확인되는 백제계 문물의 성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끝으로 고고자료로 본 백제가 가야지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군사적 진출인지, 아니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령의 의미가 아닌 정치·외교적인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헌사와 고고학 분야에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고,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三國史記』, 『日本書紀』, 『南齊書』.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三, 朝鮮總督府, 1916.

朝鮮總督府, 『大正六年度古蹟調查報告』, 1920.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2005.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 푸른역사, 2002.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남재우, 『安羅國史』, 해안, 2003.

노중국 외, 『대가야 들여다보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朴天秀,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洪潛植,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2002.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 2017.

慶尙大學校博物館, 『宜寧 中洞里古墳群』, 1994.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진주 수정봉고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국립공주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武寧王陵 발굴』, 2012.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咸安 道項里古墳群Ⅱ』, 1999.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咸安 道項里古墳群Ⅲ』, 2000.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三和出版社, 197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1984.

三江文化財研究院, 『咸安 南門外古墳群 -6·7·15號墳 및 2구역 시·발굴조사 보고서-』, 2021.

강현숙, 「百濟 橫穴式石室墳의 展開過程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34, 한국고고학회, 1996.

권오영, 「고구려 횡혈식석실분의 매장 프로세스」,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권오영, 「葬制와 墓制를 통해 본 加耶와 中國 南朝」, 『慶南의 加耶古墳과 東亞細亞』,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 金秉南,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軍史』 6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 김병남, 「성왕 초기 가야 지역의 상황과 백제의 대응」, 『韓國思想과 文化』 5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金秉南, 「百濟의 加耶 進出과 ‘泗泚會議」, 『百濟研究』 5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2.
- 김준식, 「가야 세장방형 횡혈식석실의 출현배경과 발전양상」, 『한국고고학보』 102, 한국고고학회, 2017.
- 김준식,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의 성격과 대가야 지배층」, 『한국상고사학보』 101, 한국상고사학회, 2018.
- 김준식, 「加耶 橫穴式石室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준식, 「가야고분 출토 청동완의 분포와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3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 金鎮台, 「新羅 金屬盒의 變遷樣相과 意味」,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盧重國, 「大加耶의 성장기반」,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高靈郡・韓國古代史學會, 2004.
- 朴天秀,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加耶와 百濟 -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65, 한국상고사학회, 2009.
- 徐榮敎, 「阿羅 波斯山 신라 城의 위치와 城山山城 축조시기」, 『한국고대사탐구』 2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7.
- 성정용,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 安城賢, 「慶南地域 古代 城郭의 考古學的 研究」,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이근우, 「웅진·사비기의 백제와 대가야」,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2003.
- 이동희, 2011, 「全南 東部地域 加耶文化의 起源과 變遷」, 『百濟文化』 4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李盛周, 「가야와의 문물교류」, 『백제의 문물교류』, 百濟文化史大系研究叢書 1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이영식, 「문헌사학으로 본 가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6.
- 李漢祥, 「武寧王陵出土品追報(2)-銅製容器類-」, 『考古學誌』 6,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4.
- 曹永鉉, 「三國時代 橫穴式石室墳의 系譜와 編年研究 -漢江 以南 地域을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 周旻美, 「武寧王陵出土 銅托銀盞의 研究」,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 (II)-』, 국립공주박물관, 2006.
- 河承哲, 「伽倻地域 石室의 受用과 展開」, 『伽倻文化』 18, 伽倻文化研究院, 2005.
- 河承哲, 「5~6世紀 固城地域 古墳文化의 理解」,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 洪潛植, 「嶺南地域 橫口式・橫穴式石室墓의 型式分類와 編年」, 『嶺南考古學』 12, 嶺南考古學會, 1993.
- 洪潛植, 「공주지역 백제 황혈식석실의 구조와 변천」, 『百濟文化』 4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 吉井秀夫, 「朝鮮半島鎭江下流域の三國時代墓制」, 『史林』 七十四卷一號, 史學研究會(京都大學文學部), 1991.
- 吉井秀夫, 「百濟の木棺 -橫穴式石室出土例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 542, 立命館大學, 1995.
- 吉井秀夫, 「대가야계 수혈식석곽분의 “목관” 구조와 그 성격 -못·꺾쇠의 분석을 중심으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 紀念論叢』, 2000.
- 桃崎祐輔, 「日本の蓋付銅鏡及び承台の系譜と年代」, 『무령왕시대의 동아시아 세계』, 국립공주박물관, 2014.
- 山本孝文, 「伽倻地域 橫穴式石室의 出現背景 -墓制 變化의 諸側面에 對한 豫備考察-」, 『百濟研究』 34, 忠南대학교 백제연구소, 2001.
- 定森秀夫 外, 「韓國慶尙南道晉州 水精峰2號墳・玉峰7號墳出土遺物」, 『加耶通信』, 19・20, 1990.

Abstract

Characteristics of Baekje's Geoltakseong Fortress Management Articles from Archaeological Data

Kim, Jun-sik

The incident related to Baekje's advance into Gaya in the 6th century is an important event to understand the political position of Gaya at that time. In relation to this, the article about Baekje's management into Geoltakseong Fortress is a representative case in which literature records appear as archaeological data in 531. The purpose of the Baekje's management into Geoltakseong Fortress, as seen through literature history study, was not satisfactory with the results of the Godang Conference, which was held under the initiative of Anra in 529. It can be understood that it showed Baekje's strong will to respond, which needed to be put under pressure as Silla's advance into the southeastern part of Gaya began in earnest around 530.

Based on this historical background, looking at the archaeological phenomenon of the lower Nam River area including Haman, which is presumed to be Geoltakseong Fortress, it can be seen that various kinds of Baekje culture are suddenly appearing. The emergence of Baekje culture in the early 6th century is a unique phenomenon in the lower Nam River region. This incident occurred earlier than in the Daegaya region, where Baekje's tombs in Woongjin-Sabi period and noble items appeared in earnest in Goryeong and Hapcheon.

The location of Geoltakseong Fortress has not yet been revealed. Considering the pattern of concentration of Baekje culture, it is judged

that it is clearly the Haman region. And considering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Baekje's management into Geoltakseong, the Sanin-myeon area, which is the only route from Masan and Changwon to Haman, and effective in oppressing Silla, is considered to be a strong candidate site.

The influence of Baekje in the Gaya region in the early 6th century was revealed through archaeological data. However, whether the method is a military advance from a general concept or whether it can be evaluated as a management with a strong political and diplomatic color as a means of oppressing Silla is an area that needs to be continuously studi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history and archeology in the future.

keywords :

Archaeological Data, Baekje, Gaya, Geoltakseong Fortress, Nam River, Haman